

# gwangju fringe festival

‘2024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이 오는 21일(금남로), 22일(광주비엔날레 광장)을 비롯해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등에서 펼쳐진다. ‘어쩌다 마주친...’이라는 주제로 프랑스·홍콩 해외초청공연을 포함한 총 22가지 작품이 광주 거리를 수놓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다섯 개 테마를 색선별로 살펴본다.



5개 테마 22개 작품 거리공연... 프랑스·홍콩 등 해외초청 21~22일 금남로·비엔날레 광장·시청 야외 음악당

- 1 리퀴드사운드 '긴:연희해체프로젝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 스페인 브라스밴드 '울웨이즈 드링킹' '거리는 우리의 것'
- 3 프랑스 출신의 작가 이판 '나의 날개' 공연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 ‘어쩌다 마주친’ 일상의 시간이 특별한 순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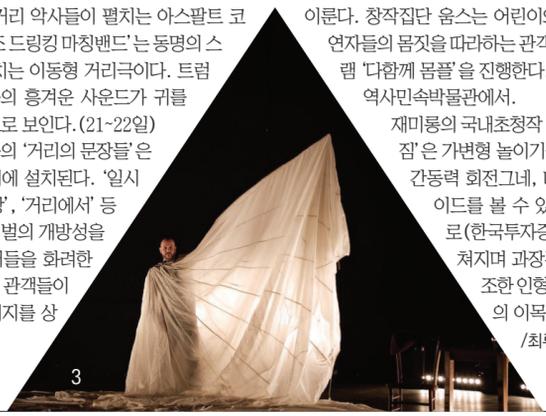
◇인생사 아픔을 보듬다. '아스팔트 블루스' 국내 라이징 아티스트와 해외 유수의 공연팀을 만날 수 있는 '아스팔트 블루스'는 주제공연 '아스팔트 블루스' (오후 5시)로 막을 올린다. 광주시민 및 예술인 200여 명이 금남로 1~4가 약 250m를 이동하며 선보이는 이동형 퍼포먼스다. 상상 속 호텔 'SOL'에서 일어난 미스테리 사건을 뮤지컬처럼 풀어낸 쏘뮤직퍼니의 '호텔 SOL'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21일·금남로)도 흥미로운 작품이다. 이어 멜랑콜리댄스컴퍼니는 무용·음악극 '초인'을 같은 날 무대에 올린다. 총 두 편의 해외초청작도 있다. 홍콩 작가 라이리의 '흐름'은 시어휘(회전기구) 등으로 채워지며 21~22일 무대화된다. 자신이 날개를 잃었다고 믿는 한 인물의 이야기 '나의 날개'는 프랑스 작가 이판의 줄타기 공연으로 한국 초연작이다. 21일 상연

하며 낙하산 등 다양한 오브제를 접목,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사랑과 열정 담은 '아스팔트 로망스' 난버벌·무용이 결합한 모드로살통의 신체극 '사이' (21~22일), JJ motion의 무용극 '찰나의 순간' (21일)은 길거리(아스팔트) 위에서 피어나는 다면적인 인간 감정을 형상화한 작품들이다. 그중 '사이'는 처음에는 뜨거웠던 관계라도 조금씩 익숙해지며 권태로워지는 모습을 표현했다. 본 공연 이외에도 워크샵, 소모임, 개인적 취향 등을 나누며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는 예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한다. '찰나의 순간'은 다이나믹한 신체 언어를 통해 인간의 외로움, 관계에 대한 욕망을 그린다. 개인주의와 인간소외를 넘어서는 힘이 타자에 대한 철나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환기하는 작품이다.

◇도시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아스팔트 보이즈' 총 여섯 편 작품으로 구성된 '아스팔트 보이즈'는 이동형 작품 세 편과 설치미술, 체험형 연극 등으로 구성된다. 전통예술과 무용이 결합한 리퀴드사운드 작 '긴:연희해체프로젝트 I', 걸작들의 이동형 거리극 '신호수VS신호수'는 21일 만날 수 있다. '가면(페르소나)'을 쓰고 있는 현대인들을 극화한 이동형 가면극 '바람노리'도 레퍼토리에 있다. 창작그룹 노니가 상연하며 21일 금남로 네이비스퀘어 앞, 22일 역사민속박물관. 이의 천근성의 영상설치물 '햇가이 글루맨, 광주에 가다'와 신호운의 설치미술 '거리의 문장들'은 금남로 및 비엔날레에서 상시 전시한다. 노래의 체험극 '작정 인형을 살려주세요(22일)'도 있다. ◇유쾌, 상쾌, 통쾌 '아스팔트 코미디'

거리예술축제의 흥과 멋이 가득한 '아스팔트 코미디'는 스페인 해외초청공연, 광주 시각예술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자리다. 여덟 명의 거리 악사들이 펼치는 아스팔트 코미디 '울웨이즈 드링킹 마징밴드'는 동명의 스페인 팀이 펼치는 이동형 거리극이다. 트럼펫, 트럼본 등의 흥겨운 사운드가 귀를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21~22일) 신호운 작가의 '거리의 문장들'은 금남로 길거리에 설치된다. '일시적 경험', '광장', '거리에서' 등 프린지 페스티벌의 개방성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화려한 색채로 표현, 관객들이 이어지는 메시지를 상상하게 한다.

◇어린이 위한 도심 속 공간 '아스팔트 놀이터' '아스팔트 놀이터'는 어린이·청소년 및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연들이 주를 이룬다. 창작집단 움스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공연자들의 몸짓을 따라하는 관객참여형 프로그램 '다함께 뭉클'을 진행한다. 21~22일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재미통의 국내초청작 '재미꿀롱 정글 집'은 가변형 놀이기구를 비롯해 인간동력 회전그네, 대형 인형 퍼레이드를 볼 수 있다. 21일 금남로(한국투자증권 앞)에서 펼쳐지며 과장된 조형성을 강조한 인형 탈들이 아이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최류빈 기자 rubi@



## 광주신세계미술제, 구성연 작가 대상 수상

### 신진작가상에 박진주 작가

제25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에 구성연 작가, 신진작가상에 박진주 작가가 각각 선정됐다. 지난 1996년부터 개최해 온 광주신세계미술제는 광주·전남 지역의 역량 있는 작가 발굴과 창작지원을 통해 지역미술문화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공모전이다. 대상 수상작가인 구성연은 동국대 인도철학과 및 서울예술대 사진과를 졸업했다. 대표작 'sugar'는 설방을 녹여 만든 사물들이 외전상 화려해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조명에도 녹아내리는 존재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신진작가상 박진주는 고려대 디자인조형학과와 이화여대 동양화 전공으로 석사를 졸업했다. 자신의 신체를 화폭에 담아 숨기고자 하는 욕망과 드러내려는 욕망의 이중성을 구현했다. 대표작 '덧'은 빛을 투과하는 비단을 활용해 피부 질감을 표현했다. 대상은 1500만원, 신진작가상은 500만원이 수여되며 광주신세계에서 초대 개인전을 개최할 시 최종 수상작가에게는 대상 2000만원, 신진작가상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구성연 작 'sugar'

한편 시상식은 지난 11일 광주신세계 분관 1층 갤러리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동훈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남진(4회), 하루.K(15회), 임현채(20회), 구남클렉티브(23회) 등 역대 수상작가 및 지역작가가 참석했다. 아울러 분관 1층 갤러리에서는 10월 7일까지 '제25회 광주신세계미술제 1차 선정작가전'이 열린다. 갤러리에는 감민경, 구성연, 김진남, 박진주, 송석우, 유수연, 유지원, 정덕용 작가의 대표 작품

과 포트폴리오를 만날 수 있다. 올해 미술제 심사는 최태만 국민대 교수, 정정영 작가, 심지연 월간미술 편집장이 맡았다. 김수영 큐레이터는 "올해 광주신세계 미술제 공모전에는 지역 출신이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90명이 응모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지금까지 제작해 온 작품과 이에 대한 설명, 전시기획안 제출 등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열컷문학, 공씨의 글림일기’ 보러오세요

### ACC, 29일까지 도서관 이벤트홀

무더웠던 여름이 서서히 저물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시나브로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다. 폭염이 물러가고 나면 가을의 낭만이 또 찾아온다. 독서의 달 가을을 맞아 인스타툰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10컷에 글과 그림을 매개로 소설미디어로 소통하는 문학 장르인 인스타툰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인기가 높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열컷문학, 공씨의 글림일기' 전시를 연다. 오는 29일까지 도서관 이벤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인스타툰 전시는 '우리 오늘도 살아 있네?'의 저자 공씨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자리다. 가족의 사랑과 위로 등을 담은 내용과 'ACC를 방문한 공씨'의 새 작품으로 구성됐다. '우리 오늘도 살아 있네?'는 작가 공씨의 '뽕뽕해서 특별한, 공씨의 글림일기' 작품을 엮은 책이다. '글+그림일기=글림일기'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작가는 "콘텐츠 내용은 사적인 내용일지라도 누군가와 공유를 하면 공감은 물론 새로운 창작의 모티브로 전이될 수 있다"며 "글과 그림으로 어우러진 인스타툰의 매력을 감상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ACC는 '제5회 아시아문화페스티벌(27일~29일) 기간 공씨 작가의 도서관 북토크를 마련했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의 저자이자 배우인 차인표 작가가 오는 28일 ACC를 찾아 강연을 펼치며, 이어 다음날에는 공씨의 북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강현 전당장은 "9월은 '독서의 달'이자 '제5회 아시아문화페스티벌'이 예정된 달"이라며 "이번 전시 프로그램이 독서문화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춘향가’·‘적벽가’·‘수궁가’ 판소리 감상회

### 25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여보 되련님 날 내려가오 여보 되련님 날 내려가오/ 나를 잊고는 못가리다 내가 도련님다려 사자 사자 헛터니까"(춘향가 중 '이별가 대목' 중)이다.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박승희)이 '판소리 감상회'를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판소리 다섯 마당 중 '춘향가', '적벽가', '수궁가' 등 사랑받는 작품들의 주요 논대목을 선보이는 자리다. 공연은 도령과 춘향의 이별의 비장함을 잘 드러내는 이별 사설인 '춘향가' 중 '이별가 대목'으로 문을 연다. 김세중제 춘향가 가운데 애절한 맛과 명창들의 더늠(유파별 스타일)을 잘 간직했다. 전남대 국악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광주시립창극단 장악부 상임 단원으로 있는 이미소가 소리를 더한다.



소리 정동렬 고수 도경한

이어지는 '적벽가' 중 '삼고초려 대목'은 소리꾼 정동렬의 목소리에 실린다. 현존하는 판소리 중에서도 가장 남성적인 소리로 정약에 가까운 우조 중심의 음악 구성이 돋보인다. 동국대 한국음악과를 졸업한 정 씨는 전주 전곡고수대회, 무안 전국 송달 국악대제전 등에서 대상을 받았다. 끝으로 판소리 '수궁가' 중 '토기 잡아들이는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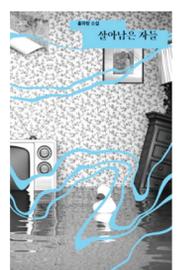


소리 이미소 소리 이서희

목'이 올려 퍼진다. 계면조의 창범과 애원조의 성음, 화려한 시김새가 조화를 이루며 해학과 풍자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소리에 한예중 전통예술원 예술사 및 전문사를 졸업한 이서희, 복제는 중앙대 국악관현악과를 졸업한 도경한이 잡는다. 박승희 예술감독은 "세 편 판소리의 주요 논대목들은 현대 관객들에게 전통의 감각을 일깨우는 매개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감상회는 해학과 눈물이 깃들어 있는 판소리의 향연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티켓 1만 원, 전당 누리집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목포문학상 본상, 홍파랑 작가 '살아남은 자들'

제16회 목포문학상 본상에 홍파랑 작가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살아남은 자들'이며 상금은 600만원. 목포문학상운영위원회는 최근 심사회를 열고 올해 목포문학상 본상 결과를 발표했다. 목포문학상은 한국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목포 출신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목포지역 작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제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수상작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 "한국의 근미래를 배경으로 기후 온난화와 이주자 차별과 같은 오늘날의 문제들을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으로 풀어냈다"며 "하나의 모티브를 서사화하는 능력과 이야기를 끌어가는 추동력이 주목을 받았다"고 평했다. 수상작은 기후 위기로 해수면이 상승해 물에 잠긴 상황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다. 한국인과 베트남인 부모와 생활하던 던 엔리는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모든 것이 뒤엎겨버린다. 극우주의자 폭력 집단인 자칭당 손에 부모를 잃게 되고, 엔리



는 복수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작품상에는 유원희 시인의 '감자잿' (상금 400만원)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감자잿'에 대해 "시적 이미지와 언어감각과 상상력이 탁월했다"며 "특히 '방을 꺼안으면 / 영정사진 속 할머니가 집에서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윤슬처럼 반짝거리는 감동을 내재한 수작"이라고 평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5일 목포공립직 문학축제 개막식 날 개최된다. 오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문학축제는 목포 문학의 산실이자 한국 문학의 거목물 다수 배출한 북교동 일대에서 열려 의미를 더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